

# 별장공파종회 정기총회 및 현판식



안동시 중앙시장길 별장공파회관에서 정기총회를 하였다.

별장공파종회(別將公派宗會 : 회장 권봉도)는 5월 2일 오전 11시 안동시 중앙시장길 (안흥동) 파종회관 2층에서 종원(宗員)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27차 정기총회 및 회관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권세환, 권재주, 권기택 고문을 비롯하여 권영세 안동시장, 김광립 국회의원, 권택기 전 국회의원, 권주연 안동총친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총회 개최에 앞서 회관 1층 입구에서 회관 현판식을 가졌다.

정기총회는 권순창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묘소 명배(淸拜), 상유례(相揖禮)를 하고 권봉도 파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년전 총회 때 회관을 마련키 위해 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모금액 5억 원은 목표로 모은 결과 헌성금(獻誠金)이 5억2천여만 원에 달해 회관을 마련하게 됨은 권기수 추진위원장 등 여러 측진들이 힘써 결과”라고 노고를 치하하고 “이 회관이 별장공파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회관 마련으로 사업을 끝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후손을 위해서 장학금 제도를 마련, 훌륭한 인물이 나오도록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립 국회의원도 축사에서 “안동 권씨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족보 성화보를 만들었다”고 치켜세우고 “돈이 있다고 문중에 돈을 내 놓는 사람이 많지 않는데 이 파에선 5천만원 이상 내 놓는 사람이 많아 부럽다”고 했다. 권택기 전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안동의 어른들을 모시고 활력 넘치게 열심히 일하셨으니 많이 도와 달라”고 하고 권주연 안동총친회장은 “다른 파(派)는 조상의 유산으로 회관을 마련했지만 별장공파는 종원들의 헌성금으로 회관을 마련하니 부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과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가 끝나고 회칙개정제에 파종회관 관리 운영 규정 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어 임원 개선에서 임시의장이 권순협

안동농협조합장을 추천받아 선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감사는 권기원, 권용혁 등 2명이 선임되었고 20인 이내의 부회장은 차후 선임하기로 했다. 권순협 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파종회를 육성 발전 시키겠다”고 밝혔다.

기타 토의에서 권재주 고문은 “후손들이 영구히 볼 수 있도록 회관 건립 헌성금을 낸 종원들의 이름을 동판(銅板)으로 제작하고 또 족보 후기도에 이름을 올릴 계획인데 앞으로 추가로 헌성금 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총회가 끝나고 전원은 다과회 자리가 마련된 회관 옥상에서 푸짐한 음식을 먹으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이날 참석자 전원에게 1만원짜리 식권 1장과 머플러, 타월 한 쌍씩을 선물로 전달했다.

<보도부장 권영건>

# 參議公諱齡齋舍移轉竣工

참의공 휘령 재사 이전준공



△추원재 준공식(좌: 권박원 이사장, 우: 권선택 대전시장



△2층에 자리한 추원재와 테이프커팅 (사회: 권선원)

지난 5월 19일 11시 대전 참의공종중(이사장 權白逸)은 대전시 서구 괴정동 414-2 참의공 묘역에 재사(追遠齋)를 이전하여 권선택 대전시장, 권경석 추밀공파 대총회장, 권준식 정현공회장 및 지파 총회 회장과 대전 지역 후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준공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권박원 참의공종중이사장은 인사에서 대전시장, 대총원 사무총장과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추원재 준공을 빛내주심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권석구(權錫九) 자문위원장은 조상님을 위한 봉사과 후손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였다. 권호준(權浩俊) 대의원의장은 그동안 2년여에 걸쳐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재실을 옮겨 신축함에 본 재사는 300여년이 흘러 3차에 걸쳐 중수하였는데 대지 300평에 건평 300평으로 면모를 갖추니 감회가 깊다고 하였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참의공께서 이곳에 터전을 잡아 후손들이 유교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말하고 권경석 대총원사무총장겸 추밀공파대총회장은 권정달 대총원총제의 추사를 대독하면서 참의공의 아들인 대사성공파 목사공 후손들이 정승관서를 지내며 보국진충하였으니 문중의 자랑이라고 하였다. 성봉헌 도산서원원장은 참의공의 3자가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만회선생과 탄옹공은 지역의 대표적 학자라고 하였다.

이어서 권호준 전이사장에게 공로패와 사업자에게 감사패 증정 후 테이프 커팅이 있었다.

참의공(參議公) 휘령(齡)은 추밀공(樞密

公)의 4세손 정헌공(正獻公)의 5세손이며 밀직공(重賈)의 현손이고 관판공(判官公) 휘실(實)의 5형제 중 장자이다.

공(公)은 세종 23년에 출생하여 호조정랑, 사제감절정을 지냈으며 성종 18년 실록에 경차관(敬差官)으로 지방에 파견되었으며 외직으로 연산군 5년 진위 현령(縣令)으로 나가고 옥천군수(郡守), 양근군수에 제수되고 치적(治績)이 좋아 연산군 12년 정3품 당

상관이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올랐다. 이후 처형인 대전 단방으로 낙향한 것으로 보인다. 중종 4년 69세에 졸하였다. 후에 아들 대사헌(大司憲) 홍(弘)이 귀히 되어 형조참판(刑曹參判)으로 추증되었다. 배위는 증 정부인 추주박씨이고 묘소는 대전시 괴정동에 쌍분이다. 정부인이 친가로부터 명당인 이 자리를 얻고자 기지를 발휘하였다는 전설이 있으니 여인이 출가하면 시기에 혼백을 묻는다 하는데 송조애손(崇祖爰孫)정신이 우리 민족의 표상인 듯하다.

부친 관관공 실(實)은 참봉을 거쳐 통훈대부 제용감(濟用監) 판관(判官)에 이르렀으며 이조참의(史曹參議)로 추증되었고 조부 좌윤공 순(循)은 사헌부 지평을 지내고 내자시 소윤으로 경차관(敬差官)이 되어 남부 삼도기근을 살피고 판제용감사(判濟用監事)를 지내고 한성부 좌윤으로 추증되었다.

공의 후사는 홍(弘), 박(博), 심기(馨壽인), 민세량(여흥인) 과 연산군 후궁인 숙의(淑儀)가 있다.

장자 대사헌공(大司憲公) 휘 홍(諱 弘)은 연산군 3년 별시 문과에서 장원(壯元)에 오르고 중종 4년 예조참판(禮曹參判)이 되고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다. 계자는 덕유(德裕)이고 덕유의 3자 吏判公 극례(克禮)는 수기(守己)와 정기(正己),

득기(得己) 등 7남 1녀를 두었는데 만회공(晩梅公) 득기(得己)는 숙부 극관(克寬)에게 출계하였다. 만회공(晩梅公)은 6남 3녀를 두었는데 4남 탄옹공(炭翁公) 시(諱)는 학문이 깊어 태사공신도비문(太師公神道碑文)을 짓고 탄옹집 7권을 남겼다. 탄방동 묘소 앞에 도산서원(道山書院)에 배향되었으며 명제 윤증(尹拯)이 묘지와 묘표를 지었으며 우암 송시열(宋時烈)이 비문을 지었다.

차자 목사공(牧使公) 휘 박(博)은 상주목사를 지내고 이조참판에 추증되어 양주 묘소의 신도비문은 한석봉(韓石峰)이 썼다. 3남 월담공(月潭公) 덕여(德輿)는 문과하여 홍문관 부제학과 춘천부사를 지냈다. 손 풍담공(楓潭公) 극중(克中)은 문과하였으며 증손 진기(進己)도 문과하여 형조참판, 경기도 관찰사를 지내고 예조판서로 추증되었다. 진기의 아들 총령공(總令公) 순장(順長)은 문과하고 병자호란에 강화섬을 지키다 자폭하고 부인과 아우 등 일가 10여인이 순절하였다. 공은 숙종조에 이조판서(史曹判書), 좌찬성(左贊成)으로 가증되고 총령(總令)의 시호와 부조지전(不洮之典)이 내려졌다. 총령공(總令公) 순장(順長)의 아들인 정간공(靖簡公) 시경(是經)은 안동부사, 경성, 함경, 강원, 충청, 전라 5도 관찰사(觀察使)를 지냈으며 형조판서(刑曹判書), 우참찬(右參贊),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지낸 후 승정대부 판도령부사(判敦寧府事)에 이르렀다.

숙종 9년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태사공 묘소 석물을 개수하고, 능동재사(陵洞齋舍) 추진원수(追遠機)를 건립하였다. (편집공, 사진 권경일)

재사에 건 주연을 소개한다. 追遠齋 楹聯(柱聯) 顧維舊舍寧宇奕奕 擇此新基乃經之營之 堂室宏潤宜宗族齋宿 棟宇隆美有行路咨嗟 油然而然多霜露之感 優如肅如致馨容乃冕門戶尙今是積世之蔭 雲仍保後在勤身而礎 돌아보고 생각하니 옛 재실이 좁고 낮았었지, 이 새 터를 가려서 공사를 마련대어 지었네, 당과 방이 크고 넓으니 종족의 재계와 유숙에 맞당하구려, 집 전체가 높고 이름다우니 김순들이 법추고 흠신도 있네, 불속 솟은 마음과 안타까움은 서리와 이슬 내림에 감동이 많았고, 이름뜻하고 경속함에 조상의 음성과 형모가 그제야 나타남을 이루네, 문호가 지금껏 빛남은 이 대대로 쌓은 음덕이었고요, 운손들의 머나먼 뒤를 보존함은 근신하고 화복함에 있구려



△좌상: 권석구 자문위원장, 우상: 권호준 대의원의장 좌하: 권경석 추밀공파대총회장, 우하: 권호준 전 이사장에 공로패 수여

# 부호장공파종회 임원회의

5월 12일 오전 11시 안동시 어가골길(대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2015년 부호장공파종회(副戶長公派宗會 회장 權五貞) 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장,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임원회의에서 권오준 총무의 사회로 권오정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오는 20일 일원정에서 개최할 경노잔치 행사 등 5개 사항을 집중 토의했다.

이날 토의한 사항을 보면 현재 파종회 소유 농지(전, 답)가 개인 명의로 되어있지만

가득기 때 권리범위가 영구보존이 어려워 농지 소유권 명의를 세대교체하기로 했다. 또 정관개정, 제례규약 제정 및 파종회 깃발 제작 등은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했으며 경노잔치 행사 가운데 올해엔 옷날이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파종회원의 장례 때 조화 증정 문제는 파종회의에 3회이상 참석하여야만 조화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 제한했다. 이날 임원회의 의결사항 가운데 중요한 안건은 내년 총회 때 상정하여 개정, 완료키로 했다.

<보도부장 권영건>



회의를 마친 임원들은 안동시 송현동 <우덕식육식당>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을 먹으면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누다 경노잔치 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 부산능동골프회 시조묘소 참배

지난 5월7일 안동권씨부산능동골프회(회장:권해국) 회원 20여 명이 안동시 성곡동 시조 묘소와 남중공 단소에 준비해온 주과 포를 정성껏 차려놓고 권길상 부산총친회장의 현악으로 참배하고 묘역을 둘러보며 조상의 음덕을 기렸다.

일행은 1박 2일 코스로 안동을 방문하여 유적지를 둘러보고 골프도 즐기며 안동의 정취를 흠뻑 마시면서 회원간의 우의를 다지고 이른 날 이후 늦게 부산으로 돌아갔다.

<권오익 총무부장>



△부산능동골프회 권해국회장 등 시조묘소를 참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雲谷書院誌

(은곡서원지)

<지난호에 이어> 정축년(1457)에 금성대군(錦城大君)의 수난(受難)이 일어나자 순흥 고을을 혁파(革罷)하여 풍기(豊基)에 예속(隸屬)시켰는데 속중 병자년(1636)에 이르러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움이 터 썩은 뿌리를 쫓고 살아내더니 양쪽 꺾짐까지 차서 올라 옛 흔적의 돌레만큼 감싸면서 지난날의 거목(巨木)으로 합성(合成)되더니 이윽고 순흥 고을이 회복되는 일이 있으니 그 점복(占卜)이 비로소 효험이 있었고 무인년(1638)에는 다시 단종이 복위되었으며 영조(英祖) 입술년(1742)에는 또 그 나무 아래에 금성단(錦城壇)을 설치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白)仲을 이루는데 또한 적료(寂寥)함에 싸여 있었다. 그 후손으로 경주에 사는 종락(宗洛)이 매번 왕래할 때에 이 나무 아래를 지나면서 손으로 어루만지고 입으로 탄식하며 하늘을 우러러 울로 말하기를 ‘고목에서 다시 움이 트니 그것이 단종이 복위될 상서(祥瑞)이고 빨아나간 썩어 숲을 이루니 그것은 절의(節義)를 포송(褒誦)할 징조(徵兆)였으니 우리 선조의 병자년(1456) 원한 또한 오늘에야 풀로할 수가 있지 않았는가? 하였다. 그런데 정조 기유년(1789)에 과연 복판(復版)되는 은전을 입어 종락(宗洛)이 고명(諡命)을 받들고 돌아오는 길에 먼저 이 나무 아래에 도착하여 은곡(雲谷)에 옮겨 심을 뜻을 입으로 빌어 말하니 은곡은 권태사의 사당으로 죽림공을 배향(配享)했는데 경주에 있는 것이었다. 이어 도끼자루 만한 크기와 긴 잣대만한 길이의 그 결가지를 잘라 행탁(行槩) 속에 넣으니 보는 자가 웃지 않음이 없었다. 순흥(順興)에서 경주가 셋백여 리나 떨어져 있고 종락의 행로(行路)는 예천(醴泉)과 용궁(龍宮) 사이로 우회하게 되어 있어서인데 한 달이나 되어서야 겨우 은곡에 도달하여 비로

소 행정(行裝) 속의 가치를 꺼내보니 꺾짐은 이미 말랐고 밑과 끝의 양쪽이 다 갈라터져 있으니 모두가 말하기를 ‘살아날 이치가 만무(萬無)하다’고 하자 종락이 격개(激慨)하여 말하기를 ‘선조의 충절(忠節)이 현창(顯彰)된다면 이 나무가 반드시 살 것’이라 하였다. 이에 사당 결의 폭포 위에 꽃아 심으니 실로 6월 16일이었는데 이윽고 과연 살아나서 지금 3년이 지나서 울연(鬱然)히 움이 무성한데 또한 죽림공에게 정려(旌勵)하고 증직(贈職)을 내리는 명(命)이 있게 되니, 아! 다시 기이한 일이다.”

한편 호(號)가 손와(巽窩)로써 정재(定齋) 유지명(柳致明)의 문인인 권영후(權永休)가 지은 또 다른 암각수기도 있는데 내용은 앞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조 14년 경술년(1790) 3월에는 산장을 권응범(權應範)으로 하고 유사를 권두환(權斗煥)으로 하였다. 동년 9월의 추황(秋享)에는 흥해(興海) 겸감 권수(權秀)가 희생(犧牲)과 향축을 봉해 보내고 이듬해 봄에도 그와 같이 봉상(封上)하였다.

정조 18년 갑인년(1794)의 추황 때에는 흥해 겸감 권의일(權宜一)이 희생과 폐백을 봉해 올렸다. 이듬해 봄의 춘향시에도 흥해의 고을원 권의일은 생백을 전과 같이 봉상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 부정공 13세손 송소공 불천위제 봉행

부정공 13세손 송소공(尉守)의 불천위제 봉행이 지난 5월 13일 (음3월 28일) 밤12시(자정) 안동시 외룡면 이재리 송소종택에서 권기남 증손, 후손, 국학진흥원 김미영 연구실장 등 4명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권오광(權五光) 집례로 1시간여에 걸쳐 불천위제를 엄숙히 봉행했다.

이날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 권기남(權奇男) △아헌관:권기승(權奇昇)△종헌관:권준호(權俊虎)△찬차:권오광(權五光)△축:권기정(權奇正)<이하생략>

<권혁세 기자>



△부정공 13세손 송소공 불천위제를 안동, 송소종택에서 봉행하고 있다.

# 권문동상 탐방기 <4>

■ 권영혁(백송헌악방 대표)

권인규(權仁圭)의사 (4) 동상(銅像) 건립

권인규(1843. 7.12일-1899.11.6일 의병)는 강원도 강릉 출신이다. 본인 권인규, 아들 권준해, 손자 권기수.

3대가 모두 의병운동에 투신하여 의병운동사상 두드러지는 집안중 하나를 장식하였다.

1885년 일제의 사주에 따라 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들에 의하여 시해되었으며, 이어서 단발령이 내려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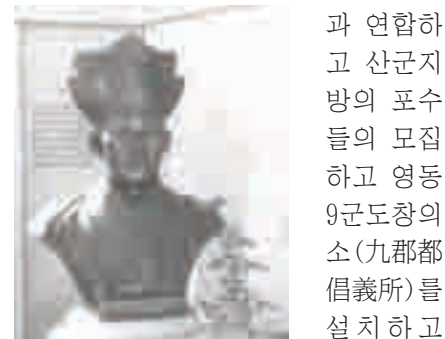
이러한 일제의 만행과 내정 간섭에 통

분함을 금치 못하고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인 의병운동이 전개되었다.

일찍이 경기 여주일대에서 의병운동을 민용호가 경기의 진의 안승우의 합진 입대 권유를 사양하고 관동지방 진출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강릉으로 권인규를 찾아왔다.

권인규는 당시 강릉일대에서 유력한 인물이며, 지명된 유학자로서 강릉 유림의 지도자였다.

민용호는 권인규에게 의병운동의 방향을 상세히 지도받은 후 영동일대의 의진



△의병 권인규의사 상

과 연합하고 산군지방의 포수들의 모집하고 영동 9군도창의소(九郡都倡義所)를 설치하고 이병체 최중봉 등의 병장을 규합하였다. 이때 권인규는 민용호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어 의병 운동을 격려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8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